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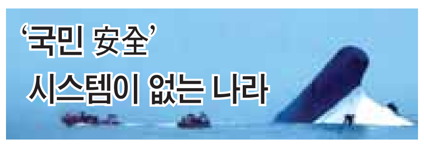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세월호 침몰 지면 안내 - 참사 현장 학생들 구한 의인 있었다 ▶2 구명벌이 작동 안 된 이유 ▶3 선체 인양 준비라도 철저히 ▶4 손발 안맞아 뒷북 치는 정부 ▶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727호 1판 2014년 4월 25일 금요일 (음력 3월 26일)

“자리를 지켜라” 방송에 꼼짝 않다 숨진 학생들



① 질서 지키면 피해보는 사회

세월호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몰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안전 시스템이 없는 나라로 전락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의 부재는 우리들의 자존심마저 수장시켰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고, 국민은 3류라는 굴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T 초강국이자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면서도 구조 대신 기적을 바라는 현실이 우리를 더없이 비참하게 만든다. 광주일보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 시스템의 현실과 대안을 긴급 진단한다.

배 버리고 도망친 선장·선원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
이익 쫓아 불법 증축·부실 감독
안전 시스템 없어 참사 되풀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는 질서다. 질서는 규칙과 순서를 지킨다는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도덕률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질서 체계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한층 커지고, 사회 기반도 주저앉게 된다.

세월호의 사례가 그렇다. 선박에서 반드시 질서 체계를 유지시켜야 할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배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면서 먼저 질서를 깨뜨린 것이다. 선박에서 선장과 승무원은 질서의 기준이다. 그러나 질서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그들만을 믿고 따랐던 일반 승객들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질서를 지킨 학생들이 대부분 숨졌다는 점에서 ‘질서를 지키면 손해 본다’는 역설이 성립하게 됐다.

선장은 본연의 의무인 구조 지휘를 포기한 채 승객보다 먼저 배를 탈출했다. 또한 15명의 선박직 선원들 역시 승객구조는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만 배를 빠져나와 전원이 살았다.

‘움직이지 말라’는 엉터리 질서였지만 학생과 교사들은 질서로 알고 따랐다. 교사 14명 중 2명만 구조됐고, 동시에 학생들의 희생도 더 커졌다. 질서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의 질서 파괴는 사회 전체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 2월17일 경주에서 발생해 23명의 대학생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1999년 10명의 유치원생들이 숨진 놀이동산 씨랜드 화재 등도 모두 질서를 지킨 어린이와 학생들이 대다수 희생됐다. 결과적으로는 질서를 지킨 사람들이 희생을 보고,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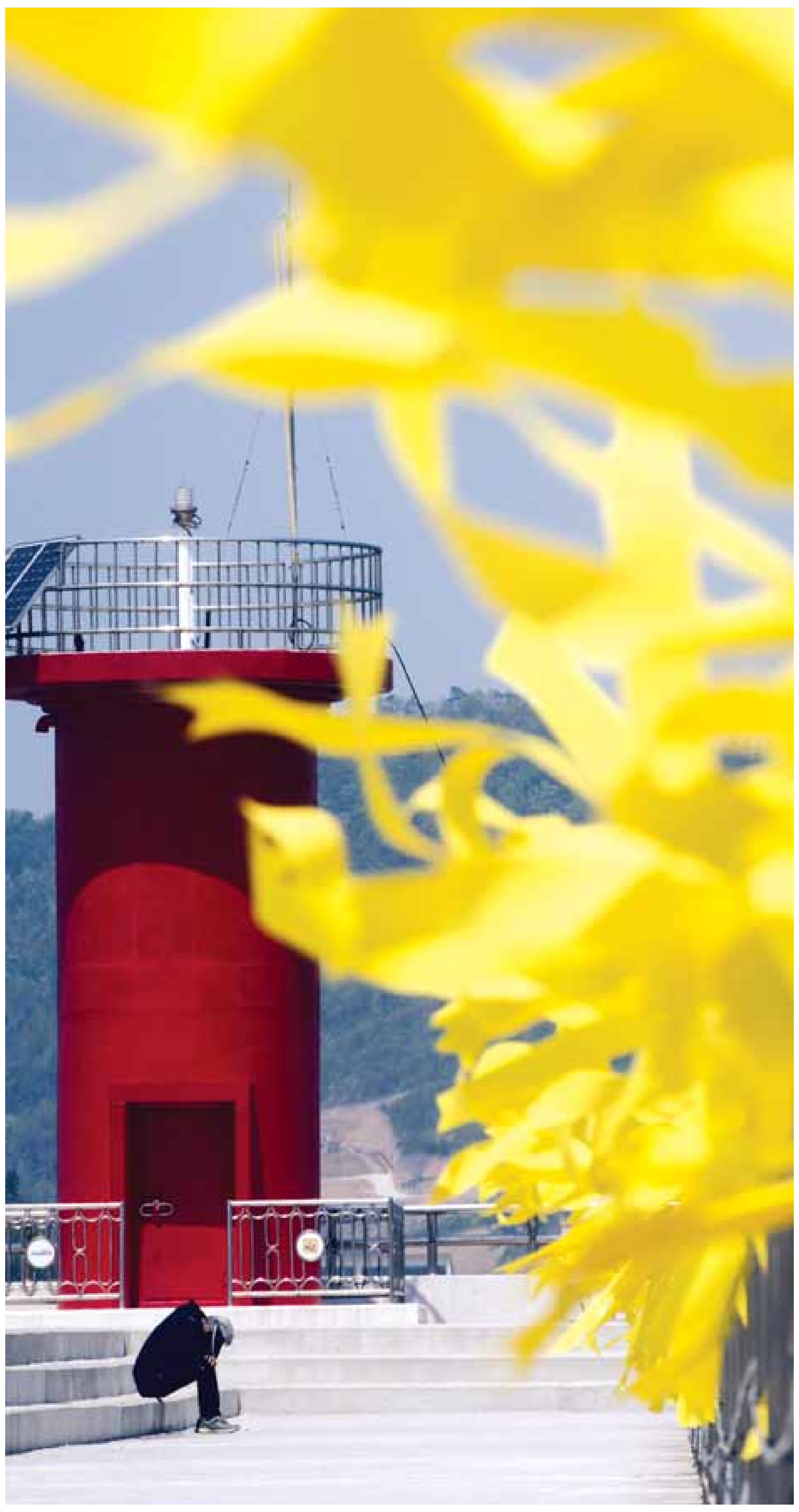
이들 참사는 사회 체계상 질서를 유지해야 할 지도층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불법으로 질서를 깨뜨리면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질서의 기준이 되고, 질서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지도층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마저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모든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지킨 사람이 피해를 봤다. 하지만 피해의 근본 원인은 명백하다. 질서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버리면서 질서 체계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결국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익만을 쫓는 우리의 문화가 참사를 부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승무원은 마지막에 나가는 거야”라며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던 승무원 박지영씨, “통장에 돈 있으니까 아이들 등록금으로 써,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해 길게 통화 못해 끊어”라며 부인과 마지막 전화를 한 양대홍 사무장 등 사무직 선원 6명은 활발히 구조활동을 펴다 배와 운명을 같이했다. 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친구에게 건네고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애쓰다 시신으로 돌아온 단원고 정차웅군, 학생들의 구조를 끝까지 돕다 희생된 교사 남윤철씨.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희생 정신을 보여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세월호, 조타실서 1차 사고 있었다”



기적이 오기를 … 노란리본 아래 간절한 기다림

‘세월호 침몰’ 9일째인 24일 100명이 넘는 실종자들이 여전히 차디찬 바닷속에 갇혀 온 국민의 애를 태우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팽목항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수천개의 노란 리본이 ‘어서 나오라’는 손짓처럼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변침으로 침몰하는 경우 없고 조타기 고장 가능성 희박
조사 참여 전문가 “비상 매뉴얼 이행 못할 또 다른 사고”
검경합동수사 결과 주목

세월호 인명 피해 상황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131명	사망 171명

※ 24일 오후 8시 현재

세월호 참사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변침(선박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일)을 전후해 또 다른 사고의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실수, 기계적 결함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선박 복원력 자체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변침이 과도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이준석(69) 선장이 사고 당시 조타실 내부에서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등 항해사인 박모(여·25)씨, 조타수 조모(55)씨 등의 진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박씨가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다가 자주 실신할 정도로 심신이 허약해 진술 자체를 제대로 못하면서 수사의 진척이 더디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항해사와 조타수의 실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3등 항해사인 박씨는 인천~중국 항로를 1년 동안 맡아 경력을 인정받았으며, 조타기 운전은 일반인도 몇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목포해양대 한 교수는 “3등 항해사에서 선장이 되기 까지 일반적으로 5~7년 정도가 걸리고 박씨도 곧 2등 항해사가 되고 30대 초반이면 선장이 됐을 것”이라며 “조타기 다루는 것도 지금 학생들이 30분 정도면 익힐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초보’가 아니라는 의미다.

세월호 등 대부분 선박은 24시간을 6등분한 뒤 1등, 2등, 3등 항해사가 운항을 맡는데, 3등 항해사는 오전 8시~정오, 오후 8시~자정을 맡아 선장은 물론 1등, 2등 항해사가 항상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이들이 보조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계적 결함, 즉 조타기 고장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맹골수도를 나와 제주항으로 향하는 지점은 10도, 즉 조타기를 약간 변경하는 곳에 불과하고, 급격한 변침을 하더라도 선박 자체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으로, 원유운반선 우이산호 부두 충돌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선박이라도 변침을 했다는 이유로 침몰하는 경우는 없으며, 조타기가 고장 나는 경우도 극히 희박하다”며 “항해사나 조타수가 현재까지 진술한 것으로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제1차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의 사고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사고 9일이 지나고 있지만 항해사, 조타수, 선장 등 선원들이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왜 전혀 손을 쓰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며 “각 선박마다 비상 시 대응 및 처리절차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전혀 이행할 수 없게 했던 또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